



## 성지에서 온 편지 (118)

9787555 70/18 st. Bar Kokhva French Hill Jerusalem Israel

Tel: 972-054-317-2752, E-Mail: [rassvet1948@hotmail.com](mailto:rassvet1948@hot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rassvet>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125:1)

안녕하세요!

새해에도 주의 도우시는 은총이 후원 교회와 가정 위에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곳은 겨울 우기(雨期)를 만나 출근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미터에 위치합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지중해의 따뜻하고 다습한 바람을 비로 만듭니다.

적도 근처지만 춥습니다.

### 가정 소식

임 선교사는 여기 초등학교 4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한국종이공예를 가르칩니다.

두 곳은 아랍 학교 그리고 다른 두 곳은 유대 학교입니다.

교사로서 준비하고 가르치며 바쁘게 삽니다.



장 선교사는 아직도 건강하게 잘 적응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 바랍니다!

### 교회 소식

저희들이 출석하는 러시아계 메시아닉 주 교회 '은혜 언약'은 지중해 해변 가까이 위치하는 르호봇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동차로 4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변에 위치한 바트얌, 텔아비브, 예쉬돗, 예쉬켈론, 리손 레찌온과 르호봇에서 교회인들이 출석합니다. 재적 교인은 약 100여 명 정도로 매주 50명 이상 모여 안식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넘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예배당이 있습니다.



(교회 형제들과 함께...)

장 선교사는 매달 둘째 주 러시아어로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마약과 술 중독자 치유 목적을 위한 갱생원이 있는 예쉬돗에 있습니다. 매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러시아 선교 경험이 이곳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매달 둘째 주 노어 설교하는 모습)

작년 가을 관광버스를 임대한 후 불신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금년 우기가 끝나는 4월 이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선교지 상황

이스라엘은 'Land between', '**사이에 끼인 땅**'이다. 이 때 들은 강들 사이, 호수들 사이, 또는 대륙들이 사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륙들뿐만 아니라 문명들과 기후들 사이에 끼어있다.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인문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하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유럽,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낀 땅이다. Buffer zone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있다고 볼 수 있다(겔 5:5 절). 이 덕분에 국제 전쟁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서 발생했다. 출현한 제국은 이스라엘을 거쳐 다른 대륙으로 나아가 영토를 확장하려 한다. 고대 문명국 중 하나인 애굽은 레반트를 통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끊임없이 진출하려 했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소아시아인 아나톨리아에서 출현한 히타이트 제국은 레반트 지역에서 애굽과 충돌했다. 그리고 그리스 계의 해양 민족도 레반트 지역을 공격하며 애굽과 충돌했다.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이에 낀 땅이다. 인류 고대 문명 중 애굽과 수메르 문명은 '사이에 낀 땅'의 남쪽과 북쪽에서 발생했다. 이들 사이 문화적 교류는 불가피했다. 두 문명 사이를 연결하는 수많은 대상로와 교통로가 이스라엘을 통과한다. 평화 시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외부의 영향 아래 놓였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이에 낀 땅'이다. 구약 시대 전쟁은 성전(聖戰: holy war)이다. 승리한 나라의 신이 강한 신으로 등장하며 패배한 나라와 민족에게 숭배를 강요했다. 이스라엘은 쉽게 종교적 혼합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태양이나 달 신들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농업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 신의 영향을 받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 종교는 쉽게 무너졌다.

**기후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이에 낀 땅'이다. 세계의 4 대 기후 사이에 끼어 있다. 북방의 찬 대륙성 기후와 남쪽 적도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열대성 기후 사이 그리고 서쪽의 다습한 지중해성 기후와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사막성 기후 사이 놓여있다. 여름에는 남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마르고 뜨거운 바람 때문에 건기가 4-10 월까지 계속되고 겨울에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대륙성 찬 바람 때문에 지중해의 다습한 공기가 비로 변하며 우기가 11 월부터 그 다음 해 3 월까지 계속된다.

특히 년 강수량 300 미리 이상인 북서 지역과 150 미리 이하의 동남 지역이 대조된다. 그리고 4 대성 기후 때문에 지역과 고도에 따라 다양한 계절 변화와 기온이 나타난다.

한국의 강원도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서 큰 나라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후와 계절을 만날 수 있다.

**지리학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사이에 낀 땅'이다. 이스라엘은 아라비아 판과 아프리카 판 사이에서 낀 곳과 같다. 80 년을 주기로 지진이 이스라엘에 발생한다. 이들 중 재앙에 가까운 지진은 400 년 주기로 발생했다. 주전 31 년, 주후 363 년, 749 그리고 1033 년에 각각 발생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독특한 지역을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게 했는가?**



(군대 징집을 반대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도로를 막고 데모한다)

2018년 기준 이스라엘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4만불 정도이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심하다. IT계통의 소수 벤처 사업가들만 부유하고 나머지 국민은 서민같이 산다. 고용 창출이 적다. 다양한 산업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영토가 작기에 많은 공장을 세울 수도 없다. 물이 생명 같은 곳에서 생태계의 오염은 너무나 치명적이다.

2032년 즈음 이스라엘 인구가 약 1200만이 될 것이라 한다. 인구가 많아야 경제 규모가 더 커지고 안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유럽과 전세계에서 유행하는 반유대주의가 유대인의 이주를 독촉한다. 조그만 나라이지만 이 정도 먹일 수 있는 농토는 충분히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네게브를 개발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인구가 커질수록 이스라엘 사회 내부는 그 만큼 더 복잡해지고 있다. 나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초정통 유대인, 이스라엘이 세속국가로 남기를 바라는 세속 유대인, 유대적 관습만 지키며 사는 종교적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 정체성을 배제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라는 팔레스타인, 이들 사이 사회적, 종교적 갈등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강원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지만 정말 복잡한 나라이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을 빕니다!!

장창수, 임월조 드림

**\*기도 제목**

1. 러시아의 4 교회들- 라스베트, 까멘스까야, 크라스노옉스까야 그리고 터넬 -을 위해...
2. 전도용 관광버스 임대를 위해서...
3. 부족한 재정적 후원이 보충되도록...
4.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